

## 협회, '벤처기업 실무자 양성과정' 개최



협회는 지난 26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용인 소재 KID 종합경영연수원에서 '벤처기업 실무자 양성과정'을 개최했다.

'벤처기업 실무자 양성과정'은 벤처기업의 대리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 커뮤니케이션 효율화, 프리젠테이션 스킬 향상,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관리 등 사례별 맞춤교육을 통해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국내 2차전지 관련 선도적 기업인 코캠엔지니어링의 홍지준 대표가 'Business Clinic' 코너를 맡아 벤처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영권 박사가 '조직내 필요한 Communication Skill 향상' 등의 강의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교육생간 단체활동 및 관심분야별 토의시간을 통하여 실무자간 네트워킹과 교육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의 시간도 가졌다.

협회는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 벤처기업 중간관리자 과정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고, 분기별로 '경영전략 기획능력 향상과정'을 통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의 기획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2003년도 교육일정 및 교육자료는 담당자(사업팀 이영호 :02-6009-4100, 내선 501, E-mail : agrippa@kova.or.kr)에게 문의하면 된다.

## 협회, '벤처넷 사용자 매뉴얼' 발간

협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운영하는 벤처기업지원 종합포털사이트 '벤처넷' (www.venturenet.or.kr)사용자들을 위한 지침서 '벤처넷 사용자 매뉴얼'을 발간했다.

벤처넷 사용자 매뉴얼은 각 기능의 자세한 설명과 이용안내, 벤처기업 정보와 뉴스 검색, 마이벤처넷과 커뮤니티 사용 안내, 벤처지원 정보와 제도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벤처넷을 보다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벤처넷 사용자 매뉴얼' 관련사항은 담당자(사업팀 한연희 : 02-6009-4100, 내선 503 E-mail : yhhan@kova.or.kr)에게 문의하면 된다.



## INKE SPRING 2003 BERLIN 개최

인케(INKE:한민족 글로벌벤처 네트워크) 지난 24일 독일 베를린의 루드비히 에르하르트 하우스에서 인케이사회 및 스프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유럽 및 한국 인케 임원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에 한국 벤처기업들의 유럽진출 교두보가 될 '한·독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한·독비즈니스센터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국제공항 바로 옆에 있는 웨스트 건물내에 설립, 내년말까지 25개 국내 벤처기업이 입주하게된다.

입주기업에게는 유럽시장 개척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마케팅, 법률 및 비즈니스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같은 서비스가 2년간 무료로 제공된다.

또 베를린 한·독비즈니스센터는 베를린 동남쪽에 있는 아들러스호프산업단지내에 만들어지며, 이곳에는 5개의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전하진 인케 의장(네피앙 대표)은 "국내 벤처기업들이 경영난을 타개하려면 수출과 해외진출에 나서야 한다"며 "인케가 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권영민 주독일한국대사도 "벤처기업의 유럽진출을 위해선 유럽의 중심에 있는 독일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혁신기업연합회’ 공식 출범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 연합체인 지역혁신기업연합회가 창립식을 갖고 공식출범했다.

지역혁신기업연합회(수석대표 권용범)는 지난 2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연합회 공식창립식을 갖고 지방경제 활성화와 자립을 위해 본격적인 공동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식에는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조해녕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지사 등 각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경남 인터넷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 첨단기업인연합회,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무등밸리벤처연합회, 울산벤처기업협회, 전북벤처기업협회, 충남벤처협회, 충북벤처클럽 소속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중요성’이란 기조연설에 이어 교수, 국회의원, 기

업인들이 패널토론을 벌였다.

연합회는 앞으로 지방기업간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핵심역량에 근거한 잠재력 있는 시장창출형 프로젝트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기업들의 공동 브랜드 제작을 비롯해 해외 상설전시장 개설, 상호 구매 등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용범 수석대표는 “지방기업들의 지방혁신에 대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 연합회 단체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형성과 공동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 총회원사는 2천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대전 / 충남

## ‘대덕밸리 서울 사무소’ 개소

대전시는 수도권에 진출하려는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덕밸리 벤처 서울사무소’를 지난 25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위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하나은행 고객센터 8층으로 모두 10개 벤처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벤처기업 생산품의 수요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

어 마케팅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비 절감을 위해 사무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주하는 업체는 인바이오넷(대표 구본탁) 등 지난 4월 공모를 거쳐 선발한 대덕밸리내 10개 기업이며 해마다 적격심사를 거쳐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 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은행과 지역벤처지원을 위한 협약

대구테크노파크(사업단장 홍대일)와 대구은행(행장 김극년)은 지난 24일 대구벤처센터 10층 회의실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제휴 및 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은 대구은행 각 지점의 기업고객전담요원으로부터 자금조달 및 애로사항과 관련한 전담 컨설

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구은행은 각 지점 자체 심사를 통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일정액의 첨단벤처기업지원 대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은행은 각종 자금조달 및 운용상품에 대한 브로슈어를 대구테크노파크와 공동제작, 지역 벤처기업에 발송하기로 했다.

## 여성벤처협회 워크숍 개최 - 도전!! 여성벤처-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이영남)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평창 보광피닉스파크에서 50여명의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스타 기업과 성장하는 KOVWA' 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처음으로 챌린지 어드벤처라는 단체 극기훈련 참여를 통해 여성벤처인의 도전정신을 보여줬다.

챌린지 어드벤처는 나무기둥 사이를 지그재그로 연결한 '3인1조 외줄 타기', 70미터 높이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고공낙하' 와 물위로 놓인 흔들다리를 건너는 '아마존다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벤처경영의 핵심인 전략적 인재관리방안의 하나로 '인사가 만사다' 라는 주제하에 컨설팅본부 이기돈 이사의 초청강연과 한국여성벤처협회의 발전방향과 역할, 글로벌 해외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 여성 CEO 해외 마케팅 포럼 발족 행사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이영남)는 여성CEO 해외마케팅포럼 발족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여성벤처 기업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교류 및 해외진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창립기념식과 함께 '해외 진출 지원사례 및 수출지원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있으며, 정통부 차관 및 해외수출 지원 기관대표, 관련기업체 대표 및 해외 여성벤처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일시 : 2003.07.04(금) 16시 30분

■ 장소 : 르네상스호텔 토파즈룸

■ 주최 : 정보통신부

■ 주관 :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한국여성벤처협회

■ 후원 : 매일경제신문, 아이뉴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 문의 :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02-6009-8500)

## Women@Venture Korea 2003 <2003 한국전자전 참가 신청안내>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주관하는 'Women@Venture Korea 2003' 부대행사의 하나로 산업자원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2003 한국전자전'에 한국여성벤처협회 독립부스로 참가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Women@Venture Korea 2003' 행사는 networking Dinner, 포럼, 전시회로 진행되며 전시회는 국내 최대의 전시회이자 해외 바이어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IT전시회인 한국전자전에 '한국여성벤처협회'의 이름으로 독립부스 형태로 참가하여 회원사의 다양한 분야의 조직들이 긴밀하게 연결됨을 보여줌으로써 기업별, 사업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전자전은 또한 IT, 전자부품, 가전제품 등이 종합적으로 전시되는 종합 전시회입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 개최내용

- 행사명 : 2003 한국전자전 (Korea Electronics Show 2003)
- 기간 : 2003. 10. 08 (수) ~ 2003. 10. 12 (일) (5일간)
- 장소 : 삼성동 COEX 태평양홀, 대서양홀, 컨벤션홀
- 주최 : 산업자원부
- 주관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 출품신청안내

- 출품신청기간 : 2003. 5. 12 (월) ~ 6. 30 (토)
- 출품신청요령 : 참가신청서 1부 제출
- 참가신청서 양식 : 참가 결정 시 요청, 팩스로 양식 수신 후 기입
- 부스신청비 : 2,250,000원 / Booth (한국 전자전 조립(기본)부스 판매가격)

### ■ 참가신청처

- 참가신청처 : 협회 사무국
- 문의 및 담당자 :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김수희 실장 (02-6009-8500~1)

### ■ 특이사항 - 무역협회 여성기업 전시참가 지원 내용

- 지원신청 자격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여성기업으로 전시회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참가예정인 기업
- 지원금액 : 기본부스의 50% 지원 (단, 상기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며,업체당 최고15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급시기 : 전시회 종료 후 2주 이내 개별 송금
- 선착순 10기업 지원

## 대전의 신성장동력은 ‘융합기술’

“대덕밸리는 IT, BT, NT 등 이종업간 융합기술의 최적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융합기술은 대전의 신성장 동력과 신산업 창출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이 지난 23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대전 신산업(IT분야)활성화 방안’ 제1차 포럼에서 한남대 이규현 교수는 ‘대전시 IT산업의 경쟁력 향상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융합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전시는 지난 30년간 집중 투자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창출한 우수 기술간 융합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곳”이라며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융합기술을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대전시는 IT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전의 IT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역량을 발굴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기술우위를 보이고 있는 대덕밸리 벤처기업들

이 시장 지향성을 추구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귀로 교수는 ‘대전지역 특화기술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RF 부품 설계 및 판매 전문회사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KAIST의 나노랩센터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덕밸리 초고주파 부품지원센터의 역할 및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KAIST, ETRI, 대전시가 공동출자하는 KED RF 디자인 회사(가칭)설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KED RF 디자인 회사는 RF 집적회로 설계 및 판매, 무선 송수신 모듈 및 기기 설계 판매, 그리고 RF 집적회로 IP개발 유지 관리 및 거간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모델은 지역 클러스터 내 벤처특화산업단지의 성공사례와 지방 산학연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 대덕넷, 한국인터넷 신문협회 가입

대덕밸리 인터넷 신문 대덕넷(www.HelloDD.com)이 국내 인터넷 신문들의 공식기구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최창환)에 가입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신규회원사 가입과 관련해 ▲인터넷신문으로서 정체성이 있고 ▲여론형성과 뉴스전달 등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며 ▲활동이 지속 가능한 매체인가 등을 중심으로 자격 심사를 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 백병규 전문위원은 “대덕넷이 3년 가깝게 지방

에서 과학기술과 벤처소식을 특화해 알린 것이 높이 평가됐다”며 “20여개 인터넷 관련회사가 회원 가입을 신청했지만 유일하게 승인됐다”고 밝혔다.

대덕넷은 이로써 10번째 인터넷신문협회 가입사가 됐다. 과학기술 및 벤처기업 전문 인터넷신문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가입하게 됐다.

### ■ 신제품 · 신기술 ■

### 인바이오넷, 항암제 인터류킨-2 ‘전임상’ 완료

대덕밸리 바이오 벤처기업 인바이오넷(대표 구분탁)은 전이성 신장세포암과 피부암에 주로 사용되는 항암제 ‘인터류킨(Interleukin)-2’의 전임상을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임상시험 허가를 신청했다.

‘인터류킨-2’의 독성시험을 대행한 바이오톡스텍(대표 강종구)은 단회 투여 및 반복 투여 독성시험에서 인터류킨-2의 전형적인 특성 외에 어떠한 독성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인바이오넷은 오는 7월 중 임상시험전문대학업체(CRO) 드림CIS(대표 남성우)에 임상시험을 대행, 내년 중 주사제 형태로 제품(제품명 제네류킨-주)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제조기반 시설의 착공에 들어가 제품 시판을 위한

대량생산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국내 특허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에서 인바이오

넷은 ‘인터류킨-2’의 제네릭 1호 제품 개발업체로 오리지널 약품시장의 약 50% 가량을 점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회사측은 현재 ‘인터류킨-2’가 전이성 신장세포암, 피부암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AIDS치료제(임상 3상), 악성 림프종(임상 2상), 유방암(임상 1상) 치료제로도 임상실험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1~3년 내에 적응증 확대와 함께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